

기도

1.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2. 말씀을 통해 마귀와 싸워 이겼던 적이 있습니까?

신앙

백성들을 '돌보는 신', 하나님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고난에 대한 구원은, 그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것을 권면한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것은 사랑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 희생 제물과 맹세를 바쳐왔던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구역 공과

2023년 6월 25일

우리를 돌보심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우리를 돌보심

베드로전서 5장 7-11절 (찬15장, 406장)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7절).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하여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8절b). 사자는 사냥을 할 때 힘 센 짐승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짐승을 노립니다. 이처럼 마귀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자라지 못한 성도를 건드립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치우쳐 욕심을 따라가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 있는 성도는 마귀의 역사와 시험을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합니다(8절a). 근신은 육신의 것을 절제하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마귀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9절).

우리는 깨어 근신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입니다(요일5:4-5).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롬10:17).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로 인해 애굽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대적임을 알고 그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부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10-11절).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대적으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절제를 통해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고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볼 때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